

재소자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⑳ 무기수 김무한

죽음으로써 업장소멸한 무기수

친아버지의 모진 학대를 견디다 못해 천륜대죄를 저지른 이가 있었다. 무기수 김무한이다. 정당방위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살인은 살인이었다. 그것도 형이 가중되는 중죄의 '존속살인'이었다. 김 씨 본인이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 씨는 친부를 살해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무기수 김무한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늘 생각나는 인연 중의 인연으로 내 삶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무기수였다.

어느 날 대구교도소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김 씨가 내게 보낸 편지였다. 편지 내용은 모범무기수로 20년 동안 형을 산 그에게 가석방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이었다. 복역기간, 수형태도 등 절차상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췄으나 딱 한 가지, 신원보증인이 없어서 문제였다.

"혹시 교도소에서 〈금강경〉 강의를 하실 때마다 칠판에 적혀있던 경구들이 기억나십니까? 매번 스님 도착하시기 전 정성껏 한 자 한 자 써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부디 스님께서 제 보증인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나는 〈금강경〉 인연으로 김 씨의 보증을 섰다. 가석방돼 출소한 김 씨는 나를 따라 김천 개운사서 다른 출소자들과 함께 지냈다. 김 씨는 여느 출소자와 달랐다. 대부분 출소자들은 청소 등 소일거리를 돕고 나서 어린아이가 칭찬을 바라듯 쪼르르 달려와 일일이 보고하려고 안달들이었다. 하지만 김무한은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일했다. 김 씨는 자신이 지은 업을 소멸하기 위해선 도량을 열심히 닦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김천서 6개월 쯤 지내다 부산으로 옮겨 자비사를 만들 때였다. 당시 사찰 재정상황은 포교당을 지은 일꾼들의 품삯을 못 쳐줄 정도로 어려웠다. 내가 여러 번 정산을 미뤘기 때문에 일당을 못 받은 일꾼들은 단체로 절에 찾아와 난동을 피우기 일쑤였다. 인건비 백만 원을 도저히 구할 길이 없던 때 김 씨가 불쑥 돈 봉투를 내밀었다.

"절이 시끄럽습니다. 이 돈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란 내가 김 씨에게 이게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묻자, 그는 훔치거나 얻은 돈이 아니니 마음 놓으란 말을 할 뿐이었다. 그 돈 백만 원은 김 씨가 감옥에서 일당 5원, 10원을 모아 만든 목돈이었다. 무기수가 감옥에서 피땀으로 번,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귀한 돈이었다. 나는 당연히 그 돈을 거절했고, 심지어 그에게 야단까지 쳤다.

"이 돈을 가지고 당신 떠나시오. 당신 같은 사람과 같이 산다면, 내가 큰 업을 짓고 살 것 같소. 만약 이 돈을 쓰고 갚지 못한다면 나는 참으로 큰 빚을 지는 거요. 무서워서 이 돈은 받을 수 없소."

남의 돈을 일절 받지 않고, 신세도 지지 않으면서 이제는 제 전부와도 같은 돈까지 나에게 내어준다는 김 씨였다. 난 그런 출소자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

몇 달간 돈을 구하지 못한 나는 결국 김 씨의 돈을 받아 일꾼들의 품삯을 치렀다. 김 씨는 보시한 것이라 했지만 나는 반드시 갚을 요량이었다.

'금강경' 인연으로 신원보증 서
석방 후 출소자들과 사찰공동생활
은인에게 화 될까 스님과 작별
유일한 꿈 합동결혼식 직전 사고사

그러던 중 김 씨와 작별의 순간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어느 날 그는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팔에 깁스를 하고 나를 찾아와 떠나겠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김 씨는 묻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다.

"저 혼자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장 스님이 저를 석방시켜주신 은인인데, 차마 스님께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 없어 참았습니다. 다음에는 분심을 참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저만 떠나면 스님이 편하십니다."

내가 김 씨를 편애한다고 생각한 다른 출소자들이 그를 야산에 끌고 가 집단폭행한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됐다.

김 씨의 요청대로 김 씨는 갱생보호회로 보내졌다. 그곳은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공공기관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일 하는 곳이었다. 김 씨가 갱생보호회로 간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김 씨에게 마지막 꿈이 있다면 착한 여자를 만나 살림 한 번 차려보는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김 씨 나이는 60세쯤 됐다.

나는 돈을 빌린 지 꼬박 1년 만에 김 씨에게 빚을 갚았다. 때마침 김 씨는 보호회서 소개받은 한 과부와 합동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나는 김 씨의 신혼자금에 보탤 백만 원을 보낼 수 있어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끝내 김 씨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 얼마 뒤 갱생보호회 지부장에게 걸려온 전화는 내게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결혼식 며칠 전, 김 씨와 예비 신부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된 봉고차가 인도를 덮쳐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였다. 예비 신부는 다치지 않고,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난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김 씨가 모아둔 돈과 사고 보상금을 처분해야만 했다. 김 씨의 재산은 유일한 유족인 그의 조카에게 승계됐다. 김 씨의 49재를 치르는 내내 나는 그의 조카를 보지 못했다.

나는 감히 부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다. 부처님은 어찌하여 이 자를 데려가신 것일까. 수행자인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산 김 씨를 왜 이렇게 무상하게 데려가십니까. 난 그렇게 하염없이 되뇔 뿐이었다.

나는 생각을 정리했다. 김 씨는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죽었다. 그리고 죽은 뒤에도 목숨을 바쳐 만든 돈을 다른 이에게 줬다. 이로써 김 씨는 금생에 지은 업을 전부 소멸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김 씨는 지금쯤 어딘가에 다시 태어나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내가 신장병을 얻어 병원을 다닌 지 벌써 6년이 됐다. 뱃속에 관을 삽입하고 투석액을 주입한 뒤 죽음을 만나는 고통의 4시간이 끝나면 특히 더 김 씨가 떠오른다. 어느 날인가는 내가 한 혼잣말을 들었는지 간호사가 말을 걸어왔다.

"고통스러운 것 압니다. 하지만 스님, 살기 위해 투석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조금 달라요. 내가 중이다보니까 생사를 조금 알아요.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하겠지만 난 싱긋 웃을 것 같네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은 병원을 안 와도 되는구나 싶어서 웃지요."

정리=김지원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⑲ 혜암 스님 · 박순금 아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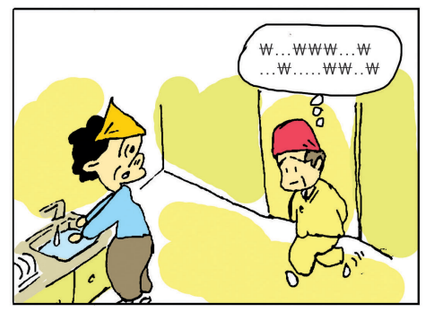
스님은 나비 모습으로 나에게 들어왔다. 스님께서는 "나비가 되어 이 꽃 저 꽃을 마주하며 공부하다 죽어야 해." 하는 말씀을 화두 아닌 화두로 삼으라 하셨다. 적어도 나에겐 그렇게 각인이 되었다. 나는 다음달 11월 말이면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는다. 글을 쓰는 시간이 용맹 정진하는 시간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말씀해주신 스님, 그립습니다.

박순금 아줌마는 30년 째 우리 집 일을 거들어 주고 있다. 순금(順金)으로 왔지만 성실하여 지금은 '박성실(誠實)'로 불리며 '보현행'이라는 불명으로도 불리고 있다. 옆의 그림은 한 때 집안이 어려워지는 것을 알게 된 아줌마가 나에게 "거사님 돈 조금만 더 벌게 기도 좀 해 주세요"하는 말을 하게 되어 둘이서 나눈 대화 일부이다.

며칠 전, 아줌마는 나에게 물었다. 더 나이 들면 요양원도 같이 가냐고. "그럼, 같이 가야지"하고 나는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인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아줌마와 나는 어떤 인연일까. 나의 부족한 면을 채워 주고 가끔 잘난 척하는 나를 바라봐 주며, 단정하게 옷 손질 해주고는 입고 나가서 하는 일마다 부처님 일이라고 등 떠밀며 현관 앞에서 인사하는 아줌마가 보살이다.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